

野 빅3 내주께 비대위원 사퇴할듯

〈문재인·박지원·정세균〉

새정치 차기 전대 모드...당권 경쟁 본격화

文 대 非文구도...사퇴시점 놓고 논란 지속

새정치민주연합의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문재인, 정세균, 박지원 비대위원이 이른바 내주 초 비대위원 동반 사퇴에 나설 전망이다. 특히, 문재인 비대위원은 최근 문화상 비대위원장에 전대위(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지도부 경선 룰을 마련하는 오는 8일 비대위원직을 사퇴하는 방안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력한 당권 주자인 비대위원 3인방의 동반 사퇴가 이뤄지면 새정치연합은 전당대회 모드로 급속히 빠져들면서 당권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4일 새정치연합 관계자에 따르면 문재인 의원은 최근 “전대에 나가는 안 나가는 거부와 상관없이 8일쯤 (비대위원직을) 그만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문화상 비대위원장에 밝혔다.

그러나 문화상 비대위원장은 사퇴 시점과 관련, “(문 비대위원)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힌) 박지원, 정세균 비대위원과 함께 상의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원 사퇴에 이은 당권 도전 여부와 관련, 문재인 의원 측 핵심 인사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순수하게 전대 룰의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비대위원 거취는 정리하겠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문재인 비대위원이 당권 도전 방향으로 마음을 굳혔다는 관측

이 나오고 있다.

법친노계로 분류되는 모 의원은 “최근 문 비대위원이 ‘(대권 보다는) 당을 구하는 게 먼저라는 의견이 많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사실상 당권 도전 의지를 굳힌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문 의원은 당권 경쟁이 친노 대 비

노의 대결 구도로 흐를수 있다는 점에 우려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당내 일각에서는 문 의원이 당의 미래를 위해 당권 도전에 대한 의지를 접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당권 주자들의 비대위원직 사퇴 시점을 놓고 전대 룰 의결 이전과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는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문화상 비대위원장은 “전준위에서 올라온 안을 존중, 비대위에서 그대로 의결할 것이기 때문에 현 비대위원들이 전대

룰 의결을 한 뒤 물러나야 한다”고 말해 ‘선(先) 비대위 의결-후(後) 비대위원 동반 사퇴’ 구상을 밝혔다.

하지만 비주류 그룹에선 비대위원들이 전대 룰을 의결하고 사퇴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비주류로 분류되는 모 중진 의원은 “전대에 나갈 선수들이 자신들이 나갈 전대의 룰을 심판까지 본다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관천 경정 검찰 출석

정운회씨 국정개입에 관한 청와대 내부 문건의 유출 의혹을 받고있는 박관천 경정이 4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평가라운지

우윤근, 광양지역 현안사업 예산 확보 주도적 역할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광양·구례) 원내대표가 광양지역 예산확보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우 대표는 광양 최대 현안인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비롯해 ▲울촌 1산단 진입도로 준설 ▲광양 도월리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신규 사업 예산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세풍~중근지역 간선 6차 건설(정삼~성황 확장사업) ▲광양 중마교 해상공원 조성 ▲신덕지구 진입도로 개설 등 3건은 각각 10~20억원을 증액시켰다.

올해의 경우 예산자동부제로 인하여 야당의 주도권이 현저히 낮아졌고, 의원

들의 지역구 예산쟁기기도 1~2건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국회의원사 단계에서 6건을 반영한 것은 상당한 성과다.

이 가운데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사업비 1310억원(국비 945억원)을 들여 광양경제구구 세풍산단 내에 ‘융·복합 소재 실증화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고부가가치 석유화학소재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김동철,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예산 ‘일등공신’ 호평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이 2015년도 국회 예산안 과정에서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과 관련한 사업비 확보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김 의원은 예초 정부 예산안조차 반영되지 않았던 ‘초경량 고강성 차체 사시부품 개발사업’과 관련해 2차레나 산업부장관을 만나 설득한 끝에 2015년 신규사업 목록에 추가하는 데 성공했다.

김 의원은 특히 운장현 광주시장과 공동으로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의 실현을 위해 기재부 장관 및 산업부장관과 수차례 접촉하고 교감을 통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다는 게 광주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 외에도 ‘클린디젤자동차 핵심부품개발사업’을 170억원으로 증액시켰으며, ‘마이크로 의료로봇센터 구축사업’과 ‘차세대 DC전기전자 연구기반구축사업’도 각각 62억원과 30억원으로 반영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광주시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김 의원의 후방 지원이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권노갑 고문 등 동교동계, 당권도전 박지원 지지

김옥두·이훈평 전 의원 등 가세

권노갑 상임고문을 주축으로 하는 동교동계가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도전이 확실시되는 박지원 의원 측면 지원에 나서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4일 권노갑 상임고문 측근에 따르면 권고문은 최근 차기 정권 창출을 위해 박지원 의원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주변에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고문은 차기 정권 창출을 위한 역량을 결집해야 할 전당대회가 자칫 계파 경쟁으로 분열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고문은 이날 “내가 이 시점에서 박지원 의원을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적절한 시기에 입장을 밝히겠다”면서도 “하지만 동교동계 동지들 사이에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박

의원을 지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고문은 새정치민주연합 창당에서의 역할은 물론 당내 갈등 상황의 조정,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대선 출마설 제기 등을 통해 정치적 존재감을 다시 각인시킨 바 있다.

여기에 김옥두, 이훈평, 박양수, 김방림 전 의원 등도 여의도에 마련된 박지원 의원의 선거 사무실에 상주하며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그동안 각종 정치 일정에서 중립적 입장을 보이거나 개인적 판단을 존중해왔던 동교동계가 박지원 의원 지지를 위해 결집에 나선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동교동계 관계자는 “당내 상황을 고려할 때, 차기 정권 창출을 위해 박지원 의원이 역할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새정치, 국감우수 의원 주승용·김성곤·황주홍·김승남 선정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여수)·김성곤(여수)·황주홍(장흥·영암·강진)·김승남(고흥·보성)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2014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주승용 의원 김성곤 의원 황주홍 의원 김승남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은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민생 25시, 안전 25시를 기조로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해 당의 위상을 드높였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주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주민세 인상의 부당성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고보조사업의 유사사업 통합과 정부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김성곤 의원은 재외공관의 외교관 자녀들의 한국인학교 입학회피, 재외공관의 감사 사각지대 문제, 외교부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의 차별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황 의원은 ‘현장 정책대안의 국정감사’를 표방하고, 지역 주민들과 10여 차례 정책간담회를 통한 의제 선정을 비롯해 상임위 소관 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정책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승남 의원은 이번 국감을 통해 발암물질 함유 담뭏초가 국내에 불법수입·유통된 문제를 제기하여 검찰의 식약처 압수수색이라는 성과를 이뤘다.

/최권원기자 cki@kwangju.co.kr

장병완, CT연구소·국가 고기장센터 예산 확보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광주 남구)이 국회 예산 심의에서 광주·전남지역 미래를 이끌 핵심 신규 사업 예산을 대거 확보, 예산통으로서 저력을 여실히 발휘했다.

광주지역 유일한 예결위원이었던 장 의원은 광주 문화산업의 엔진이 되는 문화기술(CT)연구소 청사 신축 사업은 물론 광산업 중심도시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국가고기장센터 설립 예산 등을 확보했다.

CT 연구소 청사 신축은 총 예산 규모가 400억원에 달하고 향후 정부 출연 연구소로 승격될 경우 전체 사업비가 2000억원이 넘는 대형 사업이다.

무엇보다 CT연구원은 광주가 아시아

의 문화중심도시로 발돋울 수 있는 핵심 연구기관으로 장 의원이 지난 2012년부터 관련 법안 개정과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국가고기장센터 설립은 총 사업비가 2700여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광주의 과학기술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전남대학교 응급실 리모델링 사업 등 수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지역의 해묵은 현안 예산 확보에 도 결정적 역할을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2015년 신입생 모집

상해대외경제무역대학 국제경제무역학과

홈페이지 www.suibe.co.kr

2015학년도 9월학기 입학생 모집요강

모집 대상

▶ 고등학교 졸업자(2015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검정고시 가능

모집 기간

▶ 2015년 2월28일 까지 (중국어 미학습자 신청가능)

모집 인원

▶ 30명

성공 중국유학 내신 NO! 수능 NO!

수강 기간

▶ 2015년 3월~8월 (6개월) (1일 6시간, 주30시간, 총720시간 이수)

강의 내용

▶ 중국유학준비과정 중국어 집중훈련 수료 후 중국대학 입학

www.gotochina.co.kr | 233-9582 (중) 구오팔리

2015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입생 모집

대학원

일반전형

① 원서접수 : 2014. 12. 1(월) ~ 12. 9(화)

② 전형일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전형일시
일반대학원	박사	신학과(Ph.D.)	12.12(금) 오전 10:00~
		목회학과(D.Min.)	
		신학과(Th.M.)	
	석사	신학연구학과(M.A.T.)	12.13(토) 오후 3:00~
		음악학과(M.A.)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12.12(금) 오전 10:00~
교육대학원	석사	교육학과(M.Ed.)	12.13(토) 오후 3:00~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12.13(토) 오후 3:00~
국제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M.Ed.)	
		한국어교원학과(M.A.)	

학부

정시모집

①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학과	12
	국제한국어교원학과	3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2
사범	유아교육과	3
예능	음악학과	5
	실용음악학과	3

* 음악학과 전공 ▶ 피아노, 성악, 관·현악기타, 클래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 실용음악학과 전공 ▶ 드럼, 기타(포크기타, 일렉기타), 재즈피아노, 모질,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레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② 원서접수 : 2014. 12. 19(금) ~24(수)

③ 전형일 : 2015. 1. 6(화)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역지소로 36

입학문의 ▶ 대학원 062) 605-1115 학부 062)605-1114